

펼 펼쳐 끊는 전남 바다... 양식장이 위태롭다

여수 가막만 등 수온 30도 넘나들며 고수온 피해 속출
우럭·전복 등 전남 17개 어가에서 139만여마리 폐사

여수 가막만을 비롯한 전남지역 해상 양식장이 위태롭다.

평년 수온을 5도 이상 웃도는 30도를 넘나드는 고수온 상태가 이어지면서 어패류 폐사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여수 가막만 해상 가두리에서 발생한 어패류 폐사량만 120만 마리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패류가 30도를 웃돈 고수온에 이미 큰 충격을 받은 데다, 고수온 추세가 단번에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당분간 어패류 집단 폐사가 이어질 것만 분 석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와 어가에서는 수온 양상이 3년 전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전남해역에서 만 5400만 마리의 어패류 폐사를 불러온 2018년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10일 전남도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8일까지 전남에서는 2개 시군, 17개 어가에 걸쳐 모두 139만4000마리의 어패류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10억원 수준이다. 여수에서는 우럭 양식어가 12곳에서 137만6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고 전복 양식어가 1곳에서는 전복 4000마리가 폐사했다. 완도에서는 넙치 양식어가 4곳에서 1만4000마리가 그동안 폐사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어패류 폐사량의 88.8%를 차지하는 123만8000마리(우럭 123만4000마리, 전복 4000마리)가 지난 주말과 휴일(7, 8일) 여수 가막만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8억6500만원으로, 이는 최근 5년 여수 지역 고수온 누적 피해(15개 어가, 8억97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실제 여수 가막만의 평년 수온은 24.3도인데, 10일 현재 수온은 이보다 5도 이상 높은 29.3도에 달한다. 이마저도 최근까지 30도를 웃돌던 것이 조금 내려앉은 것이다.

문제는 어패류 폐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9일과 10일에도 쉼 없이 어패류 폐사 신고가 들어와 전남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또한, 해수온은 육지에서 더위가 점점 짙고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과 달리, 큰바나 태풍, 급격한 조류 변화가 없는 한 고수

온 상태가 단번에 꺾이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이다. 전남 어가에서 양식 중인 어패류 상당수가 고수온에 취약한 점도 부담이다. 서식 한계수온이 집단 폐사가 현실화한 조피볼락(일명 우럭)과 전복은 28도, 넙치는 29도에 그친다. 참돔의 경우 31도가 한계 수온이다. 고수온 노출 시간, 어체 크기, 건강 상태, 사료 섭취 등 사육 환경에 따라 차

이는 있으나 한계수온에 일정 기간 노출되면 시간 차이가 다소는 있으나, 용존산소량 부족에 따른 집단 폐사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박인배 팀장은 "30도를 웃도는 고수온에 노출돼 어패류가 충격을 받은 데다 고수온 상태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어패류 폐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뜨거운 표층수가 계속 유입되는 여수 가막만 지역이 가장 걱정이 다"고 했다.

박 팀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먹이 공

급 감소 또는 중단, 선별 및 이동금지 등 스트레스 최소화, 산소발생기나 액화산소 가동, 차광막 설치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수 가막만 일원에서는 569개 어가(중복)에서 우럭 1700만마리, 전복 1300만마리, 감성돔 724만마리 등 13개 품종에 걸쳐 모두 5500만마리의 어패류를 양식 중이다. 전남에서는 7월 초 물폭탄성 장맛비로 인해 전복 등 수산분야에서만 700억원대 피해가 난 데 이어, 8월 들어선 고수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꿈을 이루는 시간' 수능 D-100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10일 오후 광주 남구 대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자율 학습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CCTV 등 자료조작 증거 없다”

특검, 3개월 수사 끝 불기소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우선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당시 수색 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는 건 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또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곳곳 코로나 확진자 속출

광주, 군인 등 이틀새 27명 발생
전남, 요양시설 면회 비대면 권고

광주와 전남지역 곳곳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터져 나오는 양상이 지속하고 있다. 타지역 요양 시설에서 돌파감염 등 감염세 확산하자 전남도는 도내 요양시설에 면회 방식을 기존 대면 면회에서 '비대면 면회'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면>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지난 9일 하루 동안 26명이 신규 확진됐다. 여수 10명, 목포 8명, 광양 3명, 순천·나주·해남·고흥·진도 각 1명이다. 10일 오후 2시까지 전남에서는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2203명이 됐다. 나주 3명, 여수 2명, 순천·광양·해남·영광·진도 각 1명이다.

여수에서는 골프장 연쇄감염으로 확진자와 가족 등 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여수 일가족 누적 확진자는 11명이 됐다. 목포에서는 진도 가

페 관련 n차 감염이 목표에 거주하는 농협 직원 가족과 이 가족의 여수 친척까지 번졌다. 감염 사실을 몰랐던 진도 농협 직원이 여수로 휴가를 다녀오면서다. 광양에서는 수영장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선원들의 확진 판정도 이어지고 있다. 여수에서는 중남 태안으로 출항한 3척의 선단에서 베트남 선원이 증상 발현돼 확진된 이후 3명의 외국인 선원도 양성 나왔다. 방역당국은 이 선단의 나머지 선원 25명(내국인 11명 외국인 14명)에 대해

서도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충남 천안, 서울 강동구, 부산, 경남 창원 확진자 등 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도 6명 나왔다. 해외 입국자 4명도 이틀새 추가 확진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9일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모두 12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3591명이 됐다. 광산구 주점·PC방·노래연습장 관련 2명, 수도권 유입 음식점·사우나 관련 3명, 울산 확진자 관련 1명, 광주 기존 확진자 관련 2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4명이다. 육군 훈련병 1명도 확진돼 군부대와 방역 당국이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상무지구에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한다 ▶5면
- 위기의 KIA, 난세의 영웅 기다린다 ▶18면
- 신 전남인 - 블루베리 농장주 고효신씨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배우 손담비가 선택한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메타그린 골드

메타그린 골드 원포인트

- ☑ 고지방·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
- ☑ 항산화와 뼈 건강까지 관리해 부족하기 쉬운 대사 영양 케어
- ☑ 오셀록 농장의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프리미엄 녹차 정제

“식사 후엔 메타그린 골드를 꼭 챙겨요”

제품 상담 | 080-023-5454
구매 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